



한글날 계기 교육

인문사회부

2022년 10월 9일, 576돌 한글날

한글날은 훈민정음(訓民正音) 즉,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한글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의 시초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습니다. 당시 한글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갸거겨, 나나너녀’ 하는 식으로 전파돼, 한글을 ‘가갸글’이라고 불렀고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돼 있어서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이 반포된 날로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국어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뒤 1928년부터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 이후 1932년 양력 날짜로 환산하고, 1940년 7월에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의 기록을 근거로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나타났으므로, 상순의 끝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습니다. 한글 창제 500주년인 1946년부터 양력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때, 1970년 이후 공휴일이던 한글날을 1990년 공휴일이 많다는 기업들의 지적으로 한글날이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05년에 다시 국경일로 격상됐고 여기에 한글 단체 등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국민들의 요청, **한글에 대한 국제적 위상, 한글이 갖는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부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1982년부터 매년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한글날을 기념하는 가장 쉽고 의미 있는 방법은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경축일을 기념해서 다는 경우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함현중학교 학생들 모두 한글날을 기념하여 가정에서 태극기를 달아봅시다 ^^ *^^*

- 인용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세시풍속사전, 시사상식사전, 게티이미지 코리아 자료

